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 창세기 3:1-24

요절 : 창세기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흠뻑어리에 불교한 인간을 복주시고 에덴동산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에덴과 같은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모두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인생들의 각종 죄문제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인간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속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사탄은 약점을 파고 듭니다.

사탄이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사탄은 아담이 목표였지만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담의 약점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신 목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남자는 태생적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약점들을 파악한 사탄은 곧바로 여자에게 다가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1b) 사탄이 던진 질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불평을 갖게 하여 에덴공동체를 파괴하고자하는 엄청난 공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는 사탄의 말을 듣고 “무슨 X소리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지.”하며 “사탄 타도! 말씀 수호!”를 외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탄이 심어놓은 불평과 불만족의 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여자의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자신의 생각을 보태고 있으며,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며 “설마 죽이시기가 하겠어”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준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견해를 보태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상대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 모임도 틈만 나면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사탄이 못 들어올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쉼이 없습니다. “참으로 100명대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신다고 하시더냐” “참으로 캠퍼스 역사를 이렇게 섬기라 하시더냐” 하며 공동체 안에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도록 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하며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사탄의 유혹(1-6)

하나님이 완성하신 태초의 피조세계는 완벽한 유토피아였습니다. 그 곳에는 성적 스트레스, 취업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육아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과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1년이라도 좋으니 이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힘들게 고생시키지 않으시고 에덴동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영리하다 슬기롭다는 뜻인데 사탄은 에덴동산에서 가장 영리한 녀석을 골라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중에 하나였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겔 28:1-10) 요한계시록 12:9절에서는 이 사탄을 “옛 뱀, 곧 마귀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에덴동산에 있는 사람을 꾀고자 다가왔습니다. 지금 에덴동산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탄도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공격할 타이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나 사랑이 가득한 모임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머리가 비상하고 교활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라도 조금만 틈이 보이면 약점을 파고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때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본문에 나타난 사탄의 공격 패턴을 분석해 보고 우리도

둘째 사탄은 거짓 확신을 심고 이간질 시킵니다.

여자의 약점을 파고든 사탄은 이제 급소 한방을 준비했습니다. 4.5 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한복음 8:44절에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거짓확신을 심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라며 약점을 드러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멋대로, 듣기 좋은 말을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해줍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는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 합니다. 남편이 맞장구 쳐주지 않고 딴 소리하면 싫어합니다. 사탄의 맞장구를 들은 여인은 뱀에게 손하트를 날렸을 것입니다. 눈에 하트가 가득한 여인에게 이제 사탄은 마지막 펀치를 날립니다. “너희가 그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에덴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자에게서 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여 이간질시켰습니다. 사탄은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뿐 아니라 인간 상호 관계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뿔뿔히 흩어지고 각개전투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가 너무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7부는 사랑의 공동체를 새로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봐주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깨어 이간질 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해야 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7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사탄은 욕심과 교만을 부추깁니다.

사탄은 여자의 마음에 교만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가 몇 개나 되었을까요? ‘베스킨라빈스 31’은 한달 내내 다른 맛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에덴동산은 뒤에 숫자가 얼마나 붙었을까요? 현재 지구상에 과일은 수만가지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자는 평생 다른 맛을 맛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욕심은 이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는 것만으로 불충분했습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수만가지 과일을 제쳐놓고 기어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것을 먹어야만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욕심이고,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나무의 열매에도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허락하신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사탄은 연이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고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은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여자는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되었습니다.(6) 여자와 아담은 자신들이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된 것 인양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감당해야 할 존재인 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듣고 말씀을 경솔히 여겨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외심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자기 생각을 멋대로 보태고,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무엘서 15: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욕심을 부추겨 선악과를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서 먹을 수 있는 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만은 눈을 뒤집어 놓습니다. 교만에 이끌리게 되면 눈이 뒤집혀서 절대적이던 하나님의 말씀도 상대적으로 해석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판단의 기준을 들이대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성 어거스틴은 신자의 가장 큰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높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과 여인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인류는 이로써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 죄의 역사, 고통과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II.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7-13)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들은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은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7) 그날 동산에 바람이 불었는데 그들은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8) 수치심과 자의식 또 두려움 등 죽음의 세력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축복으로 가득하던 에덴동산에서 당당하게 뛰어놀던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나무 사이에 숨어지내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몸은 비록 에덴에 있어도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

음의 세력에 붙들려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한 번의 경험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으나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 나올 수 없고,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감옥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후 악에 빠져 스스로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그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죄로인한 고통과 절망의 심연에 있는 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계약 관계가 얼마나 냉정할까!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계약파기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소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5년간이나 국가의 배급 시스템이 중단이 되었고, 삼만명 이상의 탈북자와 함께, 4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처분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세워 에덴동산을 유지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9절을 다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아담이 숨어 있는 장소를 몰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실존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명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범하고 어디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면 빨리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받아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르

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보다 내면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돕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으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하나님! 죄인을 긍휼이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의 대답은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 보겠다고 여자에게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남자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빚어진 일이니 여자와 하나님께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 한 것입니다. 이전에 배우자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와도 발뺌을 했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III.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14-24)

하나님은 계속 회개치 않는 이들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들을 당장에 내치시지 않고 먼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흠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뱀에게 “뱀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주하셨습니다. 사탄은 원수이기 때문에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은 장차 이루실 인류구원 역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사탄과 인간 사이에 영적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수 마귀와 싸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을 통해 나실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7: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댓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 만에 부활하서

서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간교하게 우리의 약점을 통해 침투하고자 해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할 때 능히 사탄의 계계를 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직후에 바로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댓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실낙원 직후에 바로 복낙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자식이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댓가를 지불하고라도 자식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 마땅한 나 한 사람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 주실 만큼 가치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한 방울만 우리에게 떨어져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로 인한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 복음의 효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낙원의 비극을 복낙원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한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로 인한 형벌로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키우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아담도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에 이르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이는 하와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장차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산 자 되신 구원자가 탄생하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식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능히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생들을 계속해서 에덴동산에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생명 나무를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2:1,2절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실낙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소망을 끊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복낙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계를 능히 파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에덴의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